

## 하박국네 이야기 2014. 4

E-mail : [kahh1691@hanmail.net](mailto:kahh1691@hanmail.net)

연락처 : 070-4685-1690(인터넷 전화) / (855)017-793-942(캄보디아)

카카오 ID : kahh1691 후원계좌 : 884-06767-266-01 씨티은행 가형호



### 프놈펜 왕립대학에서 4단계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프놈펜 대학에서 시작한 언어 공부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4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3단계 공부를 마치고 11명의 학생중 2명에게 주는 상을 제가 받았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집에서 1단계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는 위로의 상이 되었습니다. 4단계를 마치고 나면 저는 성경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려 합니다. 크마에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매일 기도합니다. 끝까지 언어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접하지 않지만 언어 배우는 과정 또한 영적전쟁 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2월에는 무릎에 염증이 나서 고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항문에 염증이 생겨서 앉아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ㅠ.ㅠ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지혜와 양기력을 주셔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후서 9:8 )

### 폴츠남 기간 동안의 전도여행



4월12-16일은 캄보디아의 ‘폴츠남’이었습니다. 폴츠남은 새해란 뜻인데 우리나라 구정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큰 명절입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언어공부 하느라 프놈펜 이외의 지역을 둘러볼 겨를이 없었는데, 평소 함께 교회에 같이 가는 ‘에잉’ 아줌마 어머니가 92살이신데 고향에 살아계시다는 얘기에 저희 가족은 2박3일 깜뽕참이라는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린도후서 9:8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넉넉하게 성길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전도여행하는데 후원금을 주변 선교사님들로부터 받게 하시고, 언어가 부족한 저희를 위해 캄보디아어로 된 어플을 다운받아 전도하게 하였고, 아줌마 아들은 1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이번 전도여행의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할머니는 마침 아프셔서 현지 병원에 나흘이나 누워계셨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셨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 여행은 할머니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복음의 동역자 세자녀



전도여행 가기 전 가장 걱정되는 것은 더위와 모기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아줌마 집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집은 대나무 다리를 두 개나 건너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아줌마네서 지내게 되었는데, 대나무로 만든 2층집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대나무 사이로 모기가 올라와 밥을 먹는 사이에도 자주 긁어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물린 둘째 하원이는 점심을 먹고 배부르자 집에 가자는 소리를 계속 해댔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때를 쓰더니 오후가 되자 아줌마는 집 뒤에 있는 강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건기철이라 알아진 강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습니다. 시원한 물놀이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둘째 하원이의 투정도 완전히 물과 함께 떠내려 보냈습니다. 세 딸들을 통해 동네 아이들과 전도의 접촉점도 만들고 무엇이든 잘먹고 잘 놀아줘서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새 침구류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으시고 가장 시원한 자리와 한 대 밖에 없는 받대리 선풍기를 어린 아이들을 위해 양보해주시고, 떠날 땐 집 주위에 열린 자몽, 잭플룻, 깨, 호박, 수세미 등 농

작물을 트렁크 가득 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 저희는 아름다운 캄보디아도 보고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글없는 책과 핸드폰으로 캄보디아 언어로 된 전도용 어플을 보여주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반복하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을 믿겠느냐는 질문에 ‘네’ 라고 반응하며 영접기도도 따라하지만, 집 안에 사당을 정리하자는 말에는 잠시 생각을 해보라며 ^^; 자리를 피하십니다. 병원에서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뒤에 앉아 우리가 나눠드린 전도지를 끝까지 혼자서 읽으시는 아주머니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땅이 희어져 추수할 곳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곳의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 마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아주머니 친척분들이 먼저 믿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 ♥ 기도제목 ♥

1.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와 어린이 예배에 기름부어주셔서 성령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지금 저와 아내는 언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셔서 언어를 잘 습득해서 복음 증거자로 잘 준비되며, 4단계 과정을 마치면 성경언어를 배우며 프놈펜 주변으로 지역정탐을 하려고 합니다. 사역지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정하게 하시고 함께 할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3. 하은, 하원이가 지금은 유치원 만 있는 곳에 다니는데, 사역지가 정해지게 되면 내년엔 초등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교육의 방향을 잘 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4. 감병참에 복음을 들은 92살 ‘또잇쌌’ (작고 예쁜)할머니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으시길, 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